

## 위성통신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며



위성통신분야의 전문학술단체인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가 그 동안의 연구 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위성통신과 우주산업」이라는 전문학술지를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보통신산업은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예상되는 정보사회의 주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통신분야는 지상통신방식에 비해 광역성, 동보성, 내재해성, 회선구성의 신속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 활용 범위가 고정위성통신이나 직접위성 방송에서 저궤도 이동통신이나 위성항행 등 새로운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95년 국내 최초의 상업위성인 무궁화호 위성이 발사되면 고속데이터통신, 다지점 영상전송 등 첨단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무궁화위성사업은 '89년 통신·방송위성추진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방침이 확정된 이후 그 동안 꾸준하게 추진되어 이제 예비·상세설계를 마치고, 위성체와 발사체의 제작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궁화위성용 지상장비인 VSAT장비와 비상행정통신용인 DAMA/SCPC의 시제품을 지난 7월 관련 연구소와 국내·외 업체가 공동으로 제작하였으며, 위성체와 발사체 기술의 습득을 위해 국내산업체와 연구소의 54명의 인력이 현지에 파견되어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위성통신분야의 발전에 때맞추어 창간된 「위성 통신과 우주산업」이 머지않아 다가올 본격적인 위성시대를 대비하며 산업계·학계·연구소의 전문가들의 정보교류와 위성사업의 발전에 관한 지혜를 모아 우리나라의 위성통신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위성통신과 우주산업」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더불어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993. 10.

체신부 통신기술심의관  
김 창 곤